

‘현실 아버지’의 탐색 과정에 나타난 식민 의식

- 이문열의 『변경』론 -

권유리아*

차 례

- | | |
|-------------------------------|-------------------------|
| I. 서론 | IV. 도달 불가능한 지향의 중단 - 떠돌 |
| II. 아메리카 제국을 향한 열망 - 양
자의식 | 이의식 |
| III. 새로운 가장의 탄생 - 고아의식 | V. 결론 |

I. 서론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무력으로 타국을 침략해 정치적 합병을 시도하는 공식적 제국은 마감되었다. 하지만 무력이 아닌 경제적, 문화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비공식적 제국이 그 자리를 대신해 들어왔다. 당대의 인식 체계 내에서 미국은 그 비공식적 제국의 가장 중요한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해방기의 미군정, 한국전쟁 시의 미군 참전, 종전 후의 미군 주둔과 대규모 경제원조 등으로 지속적으로 미국의 영향권 아래 놓여왔다.¹⁾ 『변경』은 표면적으로 자주국가지만, 심층적

* 부경대학교 강사

1) 윤건차, 『현대 한국의 사상 흐름』(당대, 2000), 292~293쪽, 최강민, 『미국식 근대

으로 보면 여전히 대미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1959~1972년대 ‘변경이라는 종속적 정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아메리카의 원조 국가, 극동아시아의 변경이라는 지정학적 기호는 제국의 원조 없이는 생존을 도모할 수 없는 국가적 주체 상실의 기호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가적 비극이 한 가족에 있어서는 아버지 상실의 상징적 기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아메리카 제국의 막강한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국가 주권을 상실하게 된 ‘외부의 변경’, 그리고 월북한 아버지로 인해 변두리로 밀려난 인물들의 비극을 의미하는 ‘내부의 변경’²⁾이 ‘두 개의 변경’이 중층적으로 작용하면서 『변경』의 서사는 역동적으로 펼쳐진다. 아버지를 상실하면서 내부의 변경인으로 살아가던 인물들이 아메리카 제국을 구원의 나라로 열망하고 여기에서 아버지를 구함으로써 다시 외부의 변경인으로 살게 되는 이중의 변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때 이 두 개의 변경은 단절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를 매개로 하여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변경』의 아버지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모하는 유동적인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³⁾ 한결같이 아버지를 부재하는 존재로 ‘고정’시킴으로써, 시대의 부침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아

로의 질주, 동양적 주체의 제한적 복원], 문학과비평연구회, 『탈식민의 텍스트, 저항과 해방의 담론』(이회, 2003), 222쪽에서 재인용.

2) 『변경』의 대다수 인물들에게는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명훈 일가를 비롯하여 김시형·경애·정숙·모니카·헤라 등 대다수의 인물이 가장 부재로 인해 고단한 삶을 살게 된다.

3) 김주연, 『아버지 상징, 그 파괴의 서사적 힘』, 이문열, 『변경』12(문학과지성사, 1998), 김주연, 『이데올로기모티프와 문학』(『문학과사회』6, 1989), 김정수, 『변두리 歷史의 소설화』, 김윤식 외, 『이문열론』(삼인행, 1991), 조기연, 『이문열의 『변경』 연구』(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태동, 『『변경』의 의미와 작가의 역할』(『문학과사상』, 1998년 겨울), 정혜경, 『“변경(邊境)”을 벗어나는 몇 가지 방법』(『세계의문학』91, 1999), 양진규, 『이문열 소설의 ‘시대착오성’ 문제』(개신어문학회, 『개신어문연구』15, 1998)

버지 상을 찾아내는 데는 아무래도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변경』의 아버지는 단순히 월북해 버린 것도 아니며, 부재하면서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힘도 아니다.⁴⁾ 물론 ‘내부적 변경’의 권력 중심인 ‘육친의 아버지’는 실종되고 없다. 하지만 인물들은 육친의 아버지가 실종된 자리에 ‘외부의 변경’의 권력 중심인 아메리카 제국을 새로운 ‘현실 아버지’로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⁵⁾ 이것이 『변경』이 끊임없이 시대를 환기시키며 인물들의 동선을 1959년부터 1972년까지 격랑의 세계사와 한국사 속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고는 『변경』에서 인물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육친의 아버지를 부정’하고 ‘현실의 아버지를 탐색’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육친의 아버지가 다양한 형태의 현실 아버지로 대체되는 과정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함께 고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인물들이 처해 있는 외부의 변경과 내부의 변경이라는 이중적 변경 상황을 고려할 때, 인물들의 시야에 포착된 현실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권력을 가진 중심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때 1960년대 아메리카 제국의 변성과 새롭게 권력을 쥔 박정희 정권을 새로운 현실의 아버지로 선택하는 양상에서 식민 담론에 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본고

4) 김주연, 『아버지 상징, 그 파괴의 서사적 힘』(『변경』12, 문학과지성사, 1998), 236~237쪽.

5) 여기서 『변경』에서 놓여있는 아버지라는 단어의 특수성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변경』에서 아버지는 단순히 가족 내의 아버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힘의 근원인 미국까지도 포괄하는 두 겹의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세계의 모든 국가 위에 군림하는 제국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가족 구성원의 지휘자인 아버지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아버지의 개념을 ‘육친의 아버지’와 ‘현실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한다. 육친의 아버지는 말 그대로 사회주의 이념을 따라 처자식을 버리고 ‘월북한 아버지’를 말한다. 현실 아버지는 신분상승욕구에 의해 인물들이 모방하기를 열망하는 ‘당대의 중심 권력’을 말하기로 한다. 물론 1960년대 현실에서 중심 권력이란 미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에서 ‘탈식민주의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중의 변경에 처해 있는 『변경』의 인물들이 중심의 권력을 아버지로 삼는 과정에서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는 ‘지배 권력에 포섭되는 과정’과 여기에 ‘은폐된 식민의식’을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탈식민적 논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상의 문제 의식을 토대로 『변경』에서 인물들이 ‘현실 아버지의 탐색 과정에 나타난 식민 의식’을 ‘탈식민주의적 방법’에 의거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II. 아메리카 제국을 향한 열망 - 양자의식

1959년 아버지가 사회주의 이념을 따라 월북하면서 남겨진 네 자녀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으로 『변경』의 첫 장은 시작된다. 사라진 육친의 아버지로 인해 『변경』의 네 자녀는 언제나 경찰의 감시망에 포획되며, 정상적인 질서로부터 거부당하는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만다. 현실 이데올로기에 의해 배척당하며, 자신들의 삶을 주변부로 내몬 육친의 아버지는 언제나 감추어야 할 존재이다. 육친의 아버지를 감추어야 할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비단 명훈·영희·인철 삼남매만이 아니다. 박원장, 경애, 김시형, 황석현, 모니카, 헤라, 창현 등 『변경』의 대다수 인물들에게 육친의 아버지는 부재하거나 무능력한 존재로 등장한다. 따라서 인물들은 육친의 아버지를 부정하고, 현실의 아버지를 찾아 그 보호 아래 의탁하려는 ‘양자(養子)의식’을 내면화하게 된다.

궁핍과 감시 속에 내던져진 불안한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권력에 가까이 가닿으려는 것이 약자의 속성이다. 주변부의 존재에게는 양자처럼 중심의 존재들과 완전한 결연을 맺어 중심의 완전한 일부가 되려는 욕망이 포착된다.⁶⁾ 레드 콤플렉스가 현실 편입의 심각한 결핍들이

6) 고모리 요이치, 송태욱 옮김, 『포스트콜로니얼,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

되는 인물들에게 민주주의 이념의 전도사이며, 엄청난 경제원조로 한국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미국은 구세주일 수밖에 없다. 현실 정치에 있어서도 1950년대 전쟁 직후는 전쟁 재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가운데 불안한 평화를 이어가던 시대이다. 이러한 정치적 긴장과 함께 일제 식민경제의 후유증으로 자립적 경제기반이 크게 위축되면서 미국의 경제원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당시 미국의 경제원조는 한국경제의 재생산과 이승만 정권의 국내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적 토대를 이루었다.⁷⁾ 1959년으로부터 시작하는 『변경』의 초반은 대미 원조경제이라는 변경적 상황에서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동일시 속에서 미국인보다 더 미국인다워지려는 양자의식이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육친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의식과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잃어버린 과거를 향한 회복 의지는 미국이라는 현실 아버지에 대한 선망과 동경으로 굴절된다. 이들뿐만 아니라, 『변경』의 대다수의 인물들은 미국을 유토피아로 인식한다. 자신들을 버린 육친의 아버지와 달리, 미국은 자신들의 가난을 휴머니즘으로 품어준 고마운 나라이다. 한국에 쏟아 부은 천문학적인 경제원조로 미국은 거부할 수 없는 힘의 실체가 되어 버렸으며, 가난한 인물들은 여기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

식』(삼인, 2002), 44쪽.

7) 해방 직후 긴급구호 성격의 점령지역행정구호원조(GARIOA)와 점령지역경제부흥원조(EROA)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한 원조는 1948년 12월 10일 한미경제원조협정의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기구(ECA)원조가 도입됨으로써 본격화하기 시작하며, 1945년부터 1961년까지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원조총액은 31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이는 비슷한 시기 아프리카에 도입된 원조총액과 맞먹는 액수이며, 라틴아메리카에 제공된 원조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다. 김정주, 「1950~1960년대 한국의 자본축적과 국가기구의 전면화 과정」,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전망』60호, 2004, 201~203쪽 참조. 그러나 『변경』에서는 미국의 경제원조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경제 원조 뒤에 가려진 허구성에 초점을 맞추는 진술들이 주로 황석현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경』2권(문학과지성사, 1998), 8~9쪽, 295~296쪽을 참조할 것.

나 원조 뒤에 숨겨진 아메리카 제국에 종속되어버린 정체성과 경제 식민지로의 편입은 그들의 원조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것이었다. 원조를 빌미로 한국의 자주권을 침탈한 나라이지만,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체감되는 것은 미국은 경제적 원조와 문화적 계몽을 베푸는 은혜의 나라라는 사실이다.⁹⁾ 이들에게 미국은 잃어버린 과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상상의 공간이며, 복제하고 싶은 문화적 모델이다.

인물들에게 풍요의 나라로 인식되는 아메리카 제국의 힘은 강제적이기보다는 유혹적으로 감지된다. 미국을 유토피아로 인식하여 아메리카 제국에서 현실 아버지를 구하면서, 여기에서 정신적 위로를 얻으려는 인물들의 옥시덴탈리즘적 태도는 자신의 내면을 식민의 영토로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실상 역사적 실체는 말할 필요도 없고 지리적 실체이자 문화적 실체이기도 한 미국과 한국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관념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¹⁰⁾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만든 것 뿐이라고 말한 비코의 말은 명훈 일가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도 인물들은 비참한 현실과 비전 없는 미래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 속에서 관념에 불과한 우월한 미국을 아버지의 국가로 승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변경』의 옥시덴탈리즘은 비록 조작의 주체만 다를 뿐이지, 아메리카 제국에 대한 우호적 관점을 유포한다는 점에서는 서양 오리엔탈리즘과 다를 바가 없다.¹¹⁾ 아메리카 제국에 대한 이러한 양자의

8) 미국의 경제원조가 순수한 휴머니즘의 차원에서 제공된 것만은 아니다. 미국의 대한원조는 도입된 원조액의 70% 이상이 비계획사업원조이어서 장기적·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응급형 원조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50년대 후반 도입된 원조는 절반 이상이 생산 기반 확충에 필요한 시설재 및 생산재 보다는 소비성 자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의 경제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도 원조로 인한 갖가지 대가를 톡톡히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김정주, 앞의 글, 203~206쪽 참조.

9) 릴라 간디, 이영옥 옮김,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현실문화연구, 2000), 28쪽.

10)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교보문고, 2005), 21~22쪽

11) 동양에 의해서 재구성되는 서양이라는 타자는 오리엔탈리즘의 목표와 같이 서

식은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하여 잘 드러나고 있다.

그 이상하게 흰 철조망과 그 너머 저만치 보이는 정구장에서 한가롭게 정구를 치고 있는 미군들이 명훈을 갑작스런 착각에 빠져들게 했다. 자유로운 것은 오히려 철조망 안에 있는 저들이고, 갇혀 있는 것은 밖에 있는 우리들이다… … (중략) … 저들은 조국의 강력함으로, 살이(生)의 풍요로움과 그의 따른 마음의 여유로 자유롭고, 우리는 조국의 무력함으로 살이의 고달픔과 그에 따른 마음의 각박함으로 갇혀 있다. 저 철조망은 우리들을 바깥에다 가둬놓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거기서 명훈은 조금 전과는 다른 이유로 걸음을 재촉했다. 얼마 안 남은 게이트가 정말로 그들의 풍요와 자유를 함께 누리도록 해줄 수 있는 무슨 축복받은 문처럼 느껴졌다.(1권, 54쪽)¹²⁾

가난한 안광읍에서 올라와 미군부대에 취직한 명훈에게 미군 부대로 들어가는 입구, 즉 “게이트가 정말로 그들의 풍요와 자유를 함께 누리도록 해줄 수 있는 무슨 축복받은 문처럼 느껴”진다. 게이트 밖은 빈곤에 허덕이는 주변부로서의 야만이라면, 게이트 안쪽인 미군부대는 경제적 풍요를 구가하는 중심부로서의 문명이다. 미군부대를 경계로 미국의 “강력함”과 한국의 “무력함”, “살이(生)의 풍요로움”과 “고달픔”은 선명하게 대조된다. 자민족에 대한 열등감이 우월한 단계로 이동하고 싶은 욕망으로 치환되면서 친미적 태도 역시 노골화한다.¹³⁾ “자유로운 것은 오히려

양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내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고유성을 왜곡하고 궁극적으로는 염려스러운 상을 주장함으로써 서양이라는 타자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변경』의 옥시덴탈리즘은 서양에서 출발한 오리엔탈리즘과 흡사하게 제국주의적인 전략으로 이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변경』의 옥시덴탈리즘은 역설적으로 서양 오리엔탈리즘의 산물이다. 샤오메이 천, 정진배·김정아 옮김, 『옥시덴탈리즘』(강, 2001), 12~17쪽 참조.

12) 이문열, 『변경』1~12권(문학과지성사, 1998). 이하 권수와 쪽수만 표기.

13) 최강민, 『미국식 근대로의 질주, 동양적 주체의 제한적 복원』, 문학과비평연구회, 『탈식민의 텍스트, 저항과 해방의 담론』(이회, 2003), 226쪽 참조.

철조망 안에 있는 저들이고, 간혀 있는 것은 밖에 있는 우리들이”라며 철저한 자기비하에 빠진다.¹⁴⁾ 이렇게 미국인 풍요로움에 무비판적으로 빠져드는 과정은 당시 한국이 미국의 원조를 수혜하면서 곧바로 미국으로 대표되는 세계자본주의 질서에 하위 주체로 편입되는 과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훈은 미국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남한을 구원해준 강력한 보호자로 여기며 친미적 태도를 노골화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인간이 식민화되는 것은 아니다. 의존의 필요성을 절감한 사람만이 식민지인이 되는 것이다.¹⁶⁾ 김시형은 6.25전쟁 때 아버지가 무참하게 인민군으로부터 학살을 당한 상처를 깊이 안고 살아간다. 김시형이 친미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미국인 아버지로부터 또 다시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이다. 육친의 아버지는 부재하고, 살아갈 현실의 터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군들이 먹다버린 음식을 모아 꿀꿀이죽을 먹으면서도 김시형에게는 굴욕감보다는 우호적 태도가 앞선다.

로마 아범이란 제너럴 톱슨이란 미군 준장(准將)으로, 고참 대령일 때부터 남달리 김형을 보살펴준 은인 같은 사람이었다. 지금은 대구에 있는 어떤 캠프의 사령관이 되어 떠나가고 없지만, 그와 김형 사이의 남다른 관계는 한국인 종업원들에게는 무슨 신화처럼 널리 퍼져 있었다. 명훈이 알기로, 김형이 장교 식당 웨이터에서 주간부 대학을 다닐 수 있는 보일러맨으로 옮겨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그가 한국인 용역 회사 간부에게 전화를 넣어준 덕분이었으며, 달리는 김형이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유학까지 돌보아주기로 약속되어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김형은 그

14) 유사하게 명훈이 미군부대의 양공주를 두 부류로 나누는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백인을 상대하는 양공주는 그래도 나은데, 흑인을 상대하는 양공주는 인생의 막장으로 전략한 여자로 보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열등한 자의 적은 열등한 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이 거울을 이용하여 자신을 반성하기 보다는 굴욕적 역사와 대면하는 데서 오는 고통에 시달린다.

15) 최강민, 앞의 글, 222쪽.

16) 프란츠 파농, 이석호 옮김,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인간사랑, 1998), 124~125쪽 참조.

런 제너럴 톰슨을 파파라고 불렀고 명훈도 톰슨이 용산을 떠나기 전에는 김형이 그런 식으로 그를 부르며 얘기하는 걸 몇 번 본적이 있었다.(1권, 70쪽)

고아인 자신의 양부가 되어준 톰슨 대령을 “파파”라고 부르는 만큼 김시형에게 미국인에 대한 양자의식은 매우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비단 김시형뿐만이 아니다. 『변경』 내부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김시형의 친미적 시각을 용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로 작품에서 극도의 궁핍과 비열한 인격으로 등장하는 한국인과는 달리, 톰슨 대령의 휴머니즘은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제너럴 톰슨”은 “로마 아범”이라는 황석현의 비아냥거림과는 달리, 생계는 물론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유학까지 돌보아주”고 교수가 되기까지 김시형에 대한 깊은 애정을 베풀어준 휴머니스트로 미화된다. 그런 점에서는 경애의 남편이 된 버터워스 소령도 긍정적 인물로 등장하기는 마찬가지다. 버터워스는 결혼을 통해 경애를 아버지의 실종과 어머니의 가출, 망령난 할머니와 일탈을 일삼는 남동생으로 인해 파탄이 난 가정으로부터 구해준다. 미군 부대 하우스 걸에서 풍요로운 아메리카의 시민으로 인생 역전을 이룬 것은 미국인 버터워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50년대 아메리카의 어떤 변경을 무대로 한 한 막의 희비극(喜悲劇)일 뿐이야. 결국은 도중에서 끝나게 되어 있는 어설픈 사랑놀이거나, 기껏해야 삶을 누리기보다는 삶에 짓눌린 원주민 부부를 만들어낼 뿐인.(1권, 281쪽)

미군 소령이 내게 가지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알아? 어릴 적에는 미군 소령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줄 알았지. 우리 아버지가 정성을 다해 섬긴 그 사람, 아버지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보다 더 풍요한 삶을 누리게끔 해준 힘의 원천도 바로 어떤 미군 소령이었지. 물론 해방 직후의 혼란 때이긴 했지만, 어쨌든 소령이란 게

급은 어린 시절이 끝날 때까지 줄곧 어마어마한 느낌으로 기억되던 것이었어.(1권, 253쪽)

경애는 “아버지가 정성을 다해 섬긴 그 사람” 즉 “미군 소령”이야말로 “아버지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보다 더 풍요한 삶을 누리게끔 해준 힘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식민담론이 가부장제와 결합되면서 식민지적 지배력은 한층 강화된다.¹⁷⁾ 실제로 『변경』에서 미국인은 모두가 남성이다. 사이드가 말한 대로 동양은 언제나 여성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모든 식민지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정복자와 지배자는 유일한 남성이며 지적인 주체 역시 남성이라는 인식은 테카르트 시대 이후 서구 사상의 일관된 흐름이었다.¹⁸⁾ 동양 여성은 자신의 가장이 되는 서구 남성의 튼튼한 보호막을 확보하기 위한 집념에 매달리게 된다. 그리하여 경애는 명훈에 대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명훈과의 사랑을 기껏해야 “원주민 부부”를 만들어낼 뿐인 “어설픈 사랑놀이”로 생각하고 버터워스를 선택하게 된다. 한국을 야만, 전근대, 가난이란 함량 미달의 하위 단계로 규정하고, 이와 반대로 아메리카 제국을 문명, 근대, 풍요의 우월적 상위 단계로 설정하는¹⁹⁾ 경애의 서구예찬론은 매우 노골적이다. 이러한 경애의 태도 역시 미국의 보호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양자의식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을 단 하나의 탈출구로 인식하고 여기에 매달리는 경애는 프란츠 파농이 말한 백인의 가면을 쓴 흑인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²⁰⁾

그러나 미군이 과연 진정한 탈출구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1950년대 한국전쟁에 파견된 미군들은 미국 사회 내에서도 권력의 상층부에 속하지 못하는 계급적 타자들인 경우가 태반이었다. 이들은 자본주의적

17) 최강민, 앞의 글, 230~233쪽 참조.

18) 이옥순,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푸른역사, 2002), 66쪽.

19) 최강민, 앞의 글, 224쪽.

20) 프란츠 파농, 앞의 책, 25쪽 참조.

경쟁사회에서 적자생존의 가능성이 뒤떨어지는 잉여인간들이었으며, 문명의 변경국인 한국에 와서 비로소 권위를 찾은 사람들이 많았다. 톰슨과 버터워스는 오로지 변경인과의 관계에서만 매력적인 존재이다. 그런데도 김시형과 경애는 톰슨 대령과 버터워스 소령을 아버지로, 혹은 남편으로 적극 호명하고 있다. 두 미국인은 개인적 자질이 아닌, 아메리카라는 공간성만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인의 의미는 스스로가 부여한 것이 아니다. 지배자를 상찬할 만한 가치의 담지자로 설정하여 놓고, 이러한 선형적으로 부여된 가치를 그대로 개개의 미군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²¹⁾ 여기서 하위계층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식민지의 모든 담론들은 지배자들의 담론인 이상, 그 틀을 통해 차별받는 사람의 목소리는 결코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미국인에게서 보호와 애정을 기대하는 양자의 식에 빠져있는 한 미국과 한국, 혹은 하위계층과 상층부가 대등하게 대화할 공간은 부재하다.²²⁾ 오로지 ‘제국의 목소리를 주입받으려는 비굴한 식민지인’의 모습만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김시형과 경애 등은 현실적 아버지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아버지 상실감을 현실적 힘의 주체인 미국으로 대신하려는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

Ⅲ. 새로운 가장의 탄생 - 고아의식

미국의 시혜를 흡족하게 받은 김시형·경애와 달리 명훈 일가는 부재하는 아버지 상을 스스로 세워가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무력한 육친의 아버지를 부정하며 자기 자신을 현실 아버지로 만들어 가려는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이때 ‘스스로 현실의 아버지’가 되는 과정은 박정

21) 프란츠 파농, 앞의 책, 169쪽.

22) 고모리 요이치, 앞의 책, 15쪽.

회 군사 정부가 기성정치권을 부정하며 스스로 입지를 찾아가는 과정과 유사하다. 한국사에서 근대 초기의 기획은 바로 구질서로서의 아버지를 부정함으로써 스스로를 새로운 아버지로 규정하고, 새로운 아비에 의해 재구축되는 가족관계를 새로운 사회모델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아의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기가 부정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 아이들이 현재의 부모를 가짜로 보고 자신을 고아로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자기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한다.²³⁾ 합헌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군사정부는 정통성 없는 고아정권이라는 약점을 보완할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경제개발을 서두르게 된다. 미국의 천문학적 원조 경제 하에서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경제는 시장 기구를 통한 자본의 내적 축적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태에서 자본 축적이 미국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됨으로써 구조적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여기에 미국원조정책의 변화로 원조액이 감소하면서 1960년대 초 한국의 자본주의는 기존의 원조의존적인 구조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게 되었다.²⁴⁾ 『변경』의 삼남매가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양자의식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가장으로 등장하려는 배경에는 자립경제로 표출된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고아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23) 근대의 기획은 전제적인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에게 놓였던 카리스마의 위치를 자녀의 위치로 옮겨 놓음으로써 완성된다. 한국사회의 근대 기획이 소년들에 대한 계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또한 이 연장선에서 설명할 수 있다. 소년은 새로운 아비에 의해 재구축되는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로 소환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고아의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자기가 부정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 아이들이 현실의 부모를 가짜로 보고 자신을 고아로 규정함으로써 상상적으로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족로망스의 산물이다.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책세상, 2000), 24~26쪽.

24) 김정주, 앞의 글, 217~218쪽.

우리에게 당신이 말하는 집, 곧 가정은 없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버지가 월북하던 날부터 우리에게 유기적(有機的) 구조로서의 집은 없어졌는지도 모르지요. 있었다면 그 구성원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말, 곧 가족이 있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억에 남아있는 집은 언제나 구조로서는 불구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버지란 기둥이 없었고 그 나머지도 온전하지는 못했지요. 언제나 가족의 일부는 집을 나가 있었고 때로는 나 자신도 별 두려움이나 죄책감 없이 벗어났으니까요.(5권, 184쪽)

“큰오빠 어디서 뭘 하셨는데? 결혼해서 어떻게 살려구?”

“이것 저것 하신 모양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앞날이지 뭐. 지금 광주 대단지에서 집을 짓고 계셔. 우리집.”

“우리집?”

“그래. 전에 어머니가 사두었던 분양증 있지? 그걸루 받은 땅에다 짓는데, 방만 해도 세 개야. 경진 누나가 국민학교 선생이니 그 집만 되면 당장은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거야.”(11권, 67쪽)

미군부대 보일러맨으로 착실하게 현실 편입을 시도하였으나, 이미 현실부적격자로 낙인찍힌 명훈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좌절뿐이었다. 월북한 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미군 부대에서 쫓겨나면서 사실상 미국을 현실 아버지로 삼으려는 기획은 폐기된다. 현실의 아버지라고 믿었던 미국이 자신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고아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미군부대에서 쫓겨난 후 명훈이 주력한 것은 ‘집짓기’이다.²⁵⁾ 인철의 말대로 “집”은, “곧 가정”이다. 따라서 “아버지란 기둥이 없”어지면서 “불구”가 된 가정을 재건하려는 것은 아메리카 제국과의 단절 선언임과 동시에 스스로 가장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명훈과 경진의 “결혼”으로 구축되는 “우리집”이라는 표현은 명훈 자신이 현실의 아버지가 되는 바로 명훈 중심의 가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버

25) 『변경』에서 명훈이 집을 짓는 모습은 두 번에 걸쳐 나타난다. 돌내골의 척박한 땅을 개간하면서 지은 흙벽돌집과, 경기도 광주대단지에서 경진과 결혼하게 되면서 지은 양옥집이다.

지 상실과 모성적 보호마저 박탈된 극단의 상황에서, 불구가 된 가정을 집짓기로 극복하는 모습은 타자의 도움이나 권위 없이도 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자신감을 만들어내고 있다.²⁶⁾

이때 영화만큼 이러한 양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은 찾기 어렵다. 이는『변경』에서 영화만큼 가족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고아적인 인물은 없다는 뜻과도 상통한다. 『변경』의 흐름으로 볼 때, 영화는 언제나 가족의 누군가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왔다. 월북 이전에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월북 이후에는 오빠 명훈과 어머니의 보호 아래 영화는 예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월북으로 체제의 사생아가 되어야 했으며, 아버지를 대신해 의지를 삼은 오빠 명훈은 폭력의 어두운 열정을 발산하는 것으로 보호자의 지위를 이탈했다. 어머니는 박원장에게 유린당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내침으로써 모녀 관계를 부정하였다. 영화에게 가족과 육친은 언제나 이렇게 무능하거나 비정한 모습으로 인식되어 왔다.

오랜만에 되찾은 자유와 여유에 취해 보낸 것도 한동안일 뿐, 영화는 곧 홀로 걸어야 할 멀고 험한 길을 떠올랐다. 밀양에서의 출발은 바로 가정과 부모 형제로부터 떠남이었으며, 이제 그녀의 삶은 오직 그녀 자신에 의해서만 개척되고 성취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어깨를 짓눌러왔다.(4권, 96쪽)

“그럼 진마담이 해보고 싶다는 사업이 부동산이야?”

“그래요. 돈이 흐르는 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화류계 아녜요? 거기서 이 몇 년 익힌 세상살이에서의 눈썰미예요. 그제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땅에서 가장 빨리 돈을 뽐치는 길은 부동산이 으뜸일 거예요.”(9권 165쪽)

26) 양석원, 『탈식민주의와 정신분석학』, 고부웅 외,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문학과지성사, 2003), 72~73쪽 참조.

가출 이후 영희는 “가정과 부모 형제로부터 떠”나 삶을 “오직 그녀 자신에 의해서만 개척되고 성취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즉 육친의 아버지를 부정하고, 스스로 아버지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뛰어난 “부동산” “사업”은 영희가 가장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오빠 명훈이 돌내골의 황무지에서 소득 없는 땅을 흘리고 있을 때, 영희는 명민하게도 “이 땅에서 가장 빨리 돈을 모치는 길은 부동산이 으뜸”이라고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다. 근대화를 향한 박정희 정권의 국가적 염원은 무엇보다도 도시계획에서 절정을 이루었으며, 이 흐름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는 자본 증식의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되었다.²⁷⁾ 영희가 매춘부 출신이라는 약점을 상쇄하고, 완고한 시대 식구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동산 투기를 활용한 ‘자본의 증식 능력’이었다.²⁸⁾ 20세기의 식민주의는 결코 단독으로 오지 않는다. 식민주의는 자본주의적 모순이 해외 팽창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언제나 식민주의는 자본의 흐름을 타고 오기

27) 영희가 돌내골에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하는 시기는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식과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려는 것 이외에도, 주체의식을 발현하기 위해서 경제에 집중하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영희의 삶 궤적이 박정희 정권의 행로와 유사하게 그려지고 있음을 암시해주는 부분이다. 결국 박정희 정권의 천민자본주의와 결탁한 영희의 앞길은 상승곡선을 그치게 되는 반면에, 박정권의 흐름을 이탈하여 농업에서 미래를 찾는 명훈은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문열, 『변경』, 6권 97~98쪽·114쪽, 7권 132쪽, 8권 214쪽 참조.

28) 1960~197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공업화에 따른 노동력 수요에 대응하여 농촌에서 매년 5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었다. 이 늘어나는 도시 인구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주거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몰려드는 노동인구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야 할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졌다. 지가상승률은 1975~1979년에 매년 20~30%에 달하였고, 1978년에는 무려 48%에 달했다. 1964년부터 1984년까지 20년 동안 물가는 111.5배 오른 반면, 토지 가격은 전국 평균 108.4배, 대도시의 경우 171배나 올랐다. 장상환, 『해방후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 부동산 투기』, 『역사비평』, 2004년 봄, 58쪽.

마련이다.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1960년대 투기 열풍에 편승하여 시택을 줄부에서 안정적인 거부의 반열에 올려놓은 영화는 자본의 운용 능력으로 실질적인 가장의 지위를 구축하게 된다.

그런데 자본에 대한 영화의 관념은 미국식 근대화를 향한 정부의 열망만큼이나 서구적인 것으로 채색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 서구의 식민담론은 근대라는 장밋빛 청사진에 포장되어 전달되었다. 보릿고개 해결이 시급한 과제였던 한국에게 미국식 근대화는 궁핍의 탈출과 풍요의 문으로 여겨졌다.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것이 미국식 기준으로 획일화 하면서 한국적 전통은 낡았다는 이미지 속에 폐기 처분되었다. 현실 상황에서도 박정희 정권은 근대적 욕망과 생활 태도를 담지한 근대국가 만들기 프로젝트를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들에게 미국식 서구 부르주아의 환상을 심어주었다. 그리하여 한국적 전통은 전근대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취급되어 서구적 근대에 밀려나게 된다.²⁹⁾ 서울 생활을 경험한 뒤 영화의 모든 가치판단은 철저하게 서구적 기준에 따르게 된다. 성형수술은 이러한 영화의 서구지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³⁰⁾

그렇게 되자 성형 수술도 반드시 해야 할 투자가 되고 말았다. 남보다 좀 많은 죽은 듯한 콧등이며 풀렸다 말았다 하는 얇은 쌍꺼풀 때문에 더욱 통통해 보이는 눈두덩, 그리고 약간 치제진 듯한 눈꼬리를 거울 속에서 만나기가 갑자기 싫어졌다.(7권, 16쪽)

“죽은 듯한 콧등이며 풀렸다 말았다 하는 얇은 쌍꺼풀 때문에 더욱 통통해 보이는 눈두덩”은 없어져 버려야 할 전근대적 얼굴로 흉물스럽게

29) 고원, 「박정희 정권 시기 농촌 새마을운동과 ‘근대적 국민 만들기」」(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사회』 제69호, 2006), 184~190쪽 참조.

30) 영화가 마음을 뺏겼던 박원장과 창현의 공통점은 서구적 미의식과 어울리는 얼굴들이라는 점이다. 어딘가 귀족적으로 보이는 박원장의 얼굴, 창백하게 악기를 들고 서 있는 창현의 외모는 서구적 미남형을 연상시킨다.

느껴진다. 전통적인 외모를 가졌다는 것은 매음시장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또한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상실하는 것이기도 하다. 영화는 명민하게도 육체와 시대적 자본과의 상관성을 간파하고 있다. 영화가 부동산 투기 등의 자본과 결탁할 수 있었던 모든 힘은 이렇게 육체의 서구화에서 나온다. 프란츠 파농은 식민지 피지배자들이 하얀 가면으로 자신의 검은 피부를 덮어버리고자 하는 경향을 집중 분석한 바 있다. 피지배자들은 토착 문화와의 사별을 고하여 그것을 매장한 다음 식민 모국의 선진 문화 속으로 섞여들려는 일종의 마술적 도약을 거행한다고 말한다.³¹⁾ 영화는 서구적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육체를 개조’하면서 서구를 향한 이데올로기적 망명을 시도하고 있다. 1960년대의 한국에서 높은 콧등, 짙은 쌍꺼풀은 자본주의시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자본이며, 풍요의 보증서임을 말해준다. 서구적인 이데올로기를 선취한 대가로 영화는 전통사상에 젖어있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제치고 한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화가 가정의 주도권을 잡은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지배의 주체가 미국인에서 한국인으로 바뀐 상황에 비유될 수 있으며, 그 방식은 여전히 노예와 주인의 이분법이라는 식민지 지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영국의 지배를 혹독하게 겪어야 했던 인도인들이 영국으로 독립하면서도 영국인이 없는 영국식 지배를 원하고 있다고 비판한 간디의 날카로운 지적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³²⁾ 따라서 새로운 가장으로 등장한 영화의 모습은 결코 주체적이라고 할 수 없다. 단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자본 증식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영화의 모습에서 식민주의를 거부하는 자세는 볼 수 없고, 오히려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삶의 양식에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31) 이경원, 『그들의 테크놀로지와 우리의 이데올로기』(『비평』 3호, 2000년 하반기), 168쪽.

32) 릴라 간디, 앞의 책, 36쪽.

스스로 가장이 되려는 의식은 인철도 예외는 아니다. 인생의 목표를 학문과 정신의 사람으로 정한 인철에게 아버지 부재의 사실은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한다. 거기에다가 서울에서 창현으로 인한 영희의 정신적 타락과 재정적 몰락, 그리고 명훈의 돌내골 개간이 끝내 처참한 실패로 돌아가자 인철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비정한 아버지와 무능한 형과 어머니, 그리고 타락한 누나, 인철에게 가족들은 보호자의 의미를 상실한 존재들이다. 이것은 인철이 스스로 가장이 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다. 그리하여 인철도 형·누나와는 다른 방식, 즉 ‘학문’을 통하여 스스로가 현실의 아버지가 되려는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이제 나는 돌아간다. 내 또래가 가치 있는 자기 형성(自己形成)을 위해 마지막 노력을 쏟고 있는 대학으로, 정예한 그들의 꿈으로, 주변인 일탈자로서의 삶에 더 맞들이지 말아라. 그 가치 왜곡이나 과장과 자기 미화(自己美化)에 더는 귀기울이지 말아라. 아직은 잘 모르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은 밝고正大(正大)해야 하며 더욱이 너는 그 선두에 있어야 한다.’(9권, 110쪽)

“주변인 일탈자로서의 삶”으로부터 탈출하여 “선두에 있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목표는 오로지 “대학”과 학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인철은 오랫동안 믿어왔다. 따라서 한국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곧바로 소수 엘리트 그룹에 진입하는 것과 같다. 이는 인철에게는 스스로 아버지가 되어 육친의 아버지로 인해 끝없는 전략의 길을 걸어야 했던 과거를 한꺼번에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대학 진학 진학을 통해서 가장의 지위를 추구하려는 인철의 태도는 대학이 인간의 정신에 관계된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명훈의 집짓기와 영희의 자본 증식과는 선명하게 구별된다. 인간의 정신을 나포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는 학문이다. 폭력과 물질은 그저 물리적인 굴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 뿐이다. 정신의 굴복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무래도 학문이다.³³⁾ 인철은 학문을 통해 가장으로서의 지위를 구축하려 한다. 한국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단순히 월북한 자의 자녀라는 사회적 모욕, 이로 인한 정신적인 타락과 경제적 몰락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지 않다. 선비사회의 유교적 전통이 오늘날까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한국대학교는 소수 엘리트 그룹에 진입하는 사회적 인증일 수 있다. 이는 육친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과거의 화려한 영광을 되찾을 가능성이 된다는 점에서 인철이 스스로 아버지가 되어 고달픈 현실을 타개해 나가려는 가장으로서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래 이대로 조금만 더 버티자. 이 가을만 되면 나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다!’(5권, 81쪽, 173쪽)

나는 황금알을 찾아서 이곳에 왔다. 나는 되도록이면 많은 황금알을 모아 나를 짓밟고 육보인 세상에 앙갚음을 하려 한다.(10권, 69쪽)

“하지만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과정에 서나마 소수 엘리트 그룹에 합류할 수 있으면 두 해 늦어진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소수 엘리트 그룹? 어떻게 하면 거기 끼여드는데?” … (중략) …

“한국대학교에 갈 겁니다. 길은 돌았지만 거기만 들어가면 그 동안의 내 낭비는 모두 벌충될 겁니다.”(9권, 148쪽)

하지만 가장이 된다는 것은 결국 지배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명훈은 집짓기와 “아버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을 동일시한다. 영화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 “황금알을 모”으는 것은 자신들을 “짓밟고 육보인 세상에 앙갚음”하려는 것이다. 인철에게 “한국

33) 옹구기 와 씨옹오, 이석호 옮김, 『탈식민주의와 아프리카 문학』(인간사향, 1999), 37쪽.

대학교” 입학과 “소수 엘리트 그룹”으로 진입하여 과거의 “낭비”를 “모두 벌충”하는 것은 같다. 여기에 새로운 가장되기의 함정이 있다. 토지·자본·교육이 곧 엘리트계급으로 직결되는 지름길이라는 일반의 인식에 의거할 때, 삼 남매의 의지는 곧 타자를 지배하려는 식민 욕망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식민 의식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학습된다. 자신들에게 가해졌던 식민지배를 무의식중에 복제한 인물들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 동포를 억압하는 주체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인 이러한 양가적³⁴⁾ 식민의 양상은 박정희 정권의 대미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종속원조로부터 벗어나려는 자립경제에 대한 욕구가 팽배해진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의 자립이 과연 식민시대의 종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산업화를 통한 남한의 근대화는 결국 미국의 경제정책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탈식민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삼 남매의 가장되기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미군이 남기고 간 서양 문화, 영어, 세계 역사에 특권을 고스란히 전수받아 결국 ‘스스로의 문화적 열등성을 인정’하는 방식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³⁵⁾

IV. 도달 불가능한 지향의 중단 - 떠돌이의식

스스로 가장이 된다는 것은 능력을 갖춘 자들에게나 허용되는 일이다.

34) 권유리아, 『이문열 『변경』에 나타난 양가성 연구』(『현대소설연구』29집, 2006) 역시 명훈과 영희의 양가성을 중요한 논점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은 명훈과 영희의 역동적인 삶이 궁극적으로 권력에 대한 모방과 저항의 양가성이라는 내면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특수성을 좀 더 구체화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 인물의 양가성이 권력과 아버지 사이의 함수관계 속에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35) 샤오메이 천, 앞의 책, 27~29쪽 참조.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극빈층 현실에서 스스로 가장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도달 불가능한 지향일 뿐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가장조차 될 수 없는 인물들의 의식 지향은 ‘떠돌이 의식’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가족적 상황 역시 국가적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1962년을 시작으로 7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이 국가 경제의 초고속 성장을 이룩하면서 한국은 세계경제사상 유래가 드문 성공 사례로 기록된다. 박정희 정권은 전무후무한 경제의 양적 성장으로 정통성 없는 권력이라는 오명을 상쇄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강력한 국가 개입의 빌미로 삼아버렸다. 자본주의의 내적 축적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태에서 대규모의 자본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권을 불가피하게 시장 외부에 존재하는 국가 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³⁶⁾ 가난에 몰모로 잡혀있는 국민들로서는 국가 권력이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의 양적인 성장은 엄청난 숫자의 하위 계층의 몰락을 대가로 성취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극소수의 재벌만을 키워낸 일방통행식 경제와 정치 체제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³⁷⁾ 『변경』에서 명훈의 광주대단지 투쟁과 탄광노조결성, 옥경의 노동자투쟁은 이러한 하층민들의 요구와 관련된 것이다. 이제껏 국가의 질서와 주류 사회에 편입되기를 소망했던 『변경』의 인물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끝없이 위협하기만 하는 체제에 대한 단결과 투쟁을 선언하게 된다. 강력한 체제와 아버지를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가장으로 입신하려는 이전의 모든 태도는 폐기된다. 결국 자신들에

36) 김정주, 앞의 글, 217~219쪽.

37) 박정희의 개발정책은 경제의 총량 성장을 목표로 한 외연적 성장전략에 기초하였다. 외연적 성장은 그것이 필요로 하는 자본의 축적을 급속히 증대시킨다는 논리에서 분배의 평등화를 선선장 후분배의 슬로건으로 침묵시킴으로써 재벌 등 가진자에 대한 유리한 분배를 정당화시키면서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가져온 반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분배를 외면하였다. 김대환, 「박정희시대를 해부한다 박정희 경제개발정책의 현재적 조명」(『역사비평』, 1993년 여름), 151쪽.

게는 ‘현실의 아버지가 허락되지 않은 하위계층’이라는 사실, 즉 ‘떠돌이 의식’으로 인해 『변경』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종자부터가 다르죠. 명훈씨는 어찌다 잘못돼 밑바닥에 떨어진 명문가의 공자님이요 저는 전쟁 미망인으로 술집 마담이 된 거리의 여자 딸이죠…… 공부도 그래요.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가방 들고 오락가락했지 만 에이, 비, 씨도 몰라요. 만화책 외엔 책 한 권 끝까지 읽어본 것도 없고…… 그런데 명훈씨는 대학까지 다녔고 책도 많이 읽으셨잖아요? 또 있어요. 더 큰 거요. 그게 제 잘못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명훈씨를 처음 만날 때 이미 제 몸은 더럽혀진 뒤였어요. 요새는 세상이 좋아졌다지만 나같이 함부로 몸을 굴린 년, 정식으로 결혼해 살기는 틀렸다는 것쯤은 진작 알고 있었어요.”(12권, 22쪽)

『변경』의 후반부에서 대다수 인물들에게 두드러지는 특징은 하위계층이라는 존재 인식이다. 그중에서도 모니카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자살로 짧은 인생을 마감하기까지 모니카의 인생은 자신의 육체를 남성의 영토로 내놓으며 살아간 철저한 식민적 인물이다. 모니카의 육체는 말없이 누운 채 지배자의 시선에 몸을 맡기는 수동적인 식민지인을 연상시킨다. 빈 공간으로 남아 남성으로부터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모니카의 육체는 그런 점에서 결핍의 상징이기도 하다. 하지만 명훈의 결혼으로 모니카는 자신의 계층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된다. “어찌다 잘못돼 밑바닥에 떨어진 명문가의 공자님”과 “술집 마담이 된 거리의 여자 딸”, “대학” 학력과 “에이, 비, 씨도” 모르는 무식함의 계층적 차이를 인식하면서 갑작스런 자기비하에 빠진다. 모든 관계를 남녀의 성(性)으로 환원 하던 모니카로서는 이전에 찾아볼 수 없는 변화이다.³⁸⁾ 아무리 노력해

38) 사실 성적·도덕적인 타락은 명훈이나 모니카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럽혀진” 몸과 부정적인 인격의 비난은 하위계층으로 인식되는 모니카 자신에게만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니카의 자기비하는 여성은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권력 관계를 승인하게 된다.

도 명훈과의 연결은 불가능하다는 단절의식은 자신은 어떤 남자도 보호자로 삼을 수 없는 비천한 처지라는 사실로 이어진다. 이렇게 현실의 아버지를 구할 수 없다는 떠돌이의식은 모니카를 자살로까지 몰고 간다.

하지만 모니카보다 계층의식에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인물은 아무래도 명훈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변경』 전체의 반전이라 할 수 있는 명훈의 인식 변화 대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돌내골의 실패가 광주대단지까지 이어지자 이제 명훈은 실패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에 의한 것임을 깨닫는다. 박정희 정권이 저지른 특권층에게만 유리한 불균등한 경제성장은 1970년대 초반 다양한 형태로 노사분규가 가열·격화되고 생존을 위한 투쟁이 사회 곳곳에서 확대되는 결과로 나타났다.³⁹⁾ 영웅처럼 기억되는 아버지, 위대하다고 믿었던 국가는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주범이었다. 여기에 매여 살았던 과거의 식민지적 삶으로부터 단절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광주대단지는 아버지와 국가에 대한 지향을 포기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된다. 산업화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광주 이주민 생활 단지 건설은 정부의 졸속행정으로 인해 난민들이 우글거리는 최악의 도시가 되고 말았다. 천신만고 끝에 마련한 자신의 집이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철거되는 상황에 이르자, 명훈은 정부의 부당한 도시정책에 격렬하게 투쟁하게 된다.⁴⁰⁾ 집은 바로 현실의 아버지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집을 철거당하는 것은 순간 『변경』에서 현실 아버지의 존재는 폐기된다.

“그럼 그 떠돌이 의식은 뭘까?”

“도달 불가능한 것への 지향? 그 때문에 떠돌이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현상이 되게 하는……” … (중략) …

39) 1970년대의 노동운동에 대하여는 이태호, 「1970년대 노동운동의 궤적」(『실천문학』4호, 1983년), 157~194쪽을 참조할 것.

40) 그런 점에서 돌내골이 가장되기라는 개인적 욕망이 분출하는 공간이었다면, 광주대단지는 하위계층의 요구가 정치적 투쟁으로 이어지는 공간이다.

“그런 것도 의식의 내용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도달 불가능한 지향이란 무얼 말하지?”

“이 세상에서는 뿌리내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말이 될까?”

“그건 또 왜 그래?”

“내리고 싶은 곳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과거나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이상향(理想鄕)에 있으면 그렇게 되겠지.” … (중략) …

“나는 그냥 떠도는 자로 남겠어. 아직은 나 자신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11권, 206~207~208쪽)

아버지라는 존재를 추구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과거나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이상향(理想鄕)”을 좇는 것과 같으며, 따라서 자신들의 “떠돌이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은 그간의 모든 노력으로부터 손을 떼게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가 없다는 떠돌이의식에 고착되면서 아버지라는 권력을 향한 모든 식민적 열망도 포기한다. 광주 대단지 투쟁의 대열에 앞장서면서 명훈은 비로소 하위계층은 불가항력의 권력에 언제나 희생당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인식에서 비로소 벗어난다.

‘그래, 너도 드디어는 와야 할 곳에 왔구나. 이게 바로 이 사회가 일찍부터 우리에게 편입되기를 요구해온 계급이었다. 이제부터는 가차없이 싸우고 요구하겠다. 우리를 여기로 내몬 자들에게 우리도 결국은 자신들의 일부임을 상기시켜주겠다. 여기 이 단지를 허영게 덮고 있는 불행한 삶의 동지들과 함께.’(12권, 142쪽)

자신 역시 광주대단지를 “허영게 덮고 있는 불행한 삶의 동지들”과 조급도 다르지 않은 떠돌이이며, 이제는 그동안 열망했던 바로 그 현실 아버지에게 대항하여 “가차없이 싸우고 요구하겠다”는 투쟁의지를 힘주어 강조한다. 그러나 무자비한 정부의 진압으로 시위는 실패로 돌아가고, 명훈은 수배를 피하여 사복의 한 탄광촌으로 숨어든다. 한번 타오른 분

노의 불길은 탄광촌 노조 설립으로 이어지지만, 경찰과 결탁한 탄광촌 사주의 음모로 명훈은 의문의 죽음을 맞는다. 박정희 독재정권이 만들어진 1970년대는 이렇게 무지막지한 시대였다. 예측이 아니면 죽음이라는 독재정권의 포악성은 이제 궁지에 몰린 인물들에게 탈식민적 자각의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탈식민 기획의 근저에 존재하는 원칙은 노예화된 식민지인이 식민 본국 주인에 대한 인정의 특권을 거부하는 것이다. 명훈 일가는 ‘현실 아버지의 힘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총체적인 해방’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하위계층은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위주체는 근대 부르주아지의 철학이었던 개인의 발견을 습득해나가면서도 이를 넘어서 수 있는 자기결정권과 실천 의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광주대단지투쟁과 탄광노조설립은 명훈이 비로소 상류층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과거의 식민성을 완전하게 벗어나고 있다는 명백한 근거를 제공한다.

‘천민자본주의라고 했던가. 내가 부(富)를 움키는 방식을. 그건 아마 내 방식이 저들과 비슷하다는 뜻이겠지. 어쨌든 좋아. 하지만 그래서 뜻대로 부를 움켜쥐게 된다 해도 저들을 떠나지는 않겠어. 나는 바로 저들이야. 저들의 방식으로, 어쨌면 저들의 것을 훔쳐 홀로 고귀하고 우아한 세계로 달아나지는 않겠어. 저들의 거리에 남겠고, 내게 그럴 힘이 주어진다면 언제든 기꺼이 저들을 먹이겠어.’(12권, 215~217쪽)

영희의 경우도 탈식민의 자각은 선명하다. 부동산 투기의 열기가 절정에 달할 때, 광주대단지에서 격렬하게 투쟁 중인 오빠 명훈과 조우하게 된다. 오빠와의 조우로 영희는 오로지 “부(富)를 움키”기 위해 살아왔던 그간의 삶을 되돌아키며, 진정한 계급적 정체성에 눈을 뜨게 된다. 이런 자각은 빌딩 준공식장에서 막노동꾼들과 동질감을 느끼는 것으로 발현한다. “나는 바로 저들이야”라고 하며, 더 이상 “저들의 것을 훔쳐 홀로 고귀하고 우아한 세계로 달아나지는 않겠어. 저들의 거리에 남겠고, 내

게 그럴 힘이 주어진다면 언제든 기꺼이 저들을 먹이겠어”라는 인식이 그러하다. 물론 영희의 경우는 의식의 변모가 너무도 갑작스러운 감이 없지 않다. 이것은 구체적 삶의 현장에 밀착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오빠 명훈의 영락한 처지에 대한 형제애적 동정일 개연성이 농후하다. 탈식민의 투쟁이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민 현실에 대한 철저한 체험과 여기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이 매개되어야 한다. 막강한 부를 축적한 상태에서 건설 인부들에게 즉흥적으로 시혜의식을 드러내는 것은 단순한 감상의 차원을 넘어서기 어렵다. 이것은 또한 의식의 변모가 작품 말미에 미미한 분량으로 언급되어 명훈처럼 실천 투쟁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순간적일망정 상류층을 향한 최면화된 시선으로 자신을 파생적 존재로 하락시켰던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점에서 분명 중대한 ‘탈식민적 자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철의 경우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의 10월 유신이 선포되면서, 아버지 지향에 종지부를 찍는다. 역사는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작은 혁명을 통해 끊임없이 완성되면서 좀 더 나은 완성을 향해 열려 있는 진보의식의 연속체이다. 삼남매가 현실의 아버지로 삼고 지향했던 미국을 포기하고, 자신들 스스로가 아버지가 되려는 과정 속에서 역사를 능동적으로 해석하며, 그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역사적 개인의 모습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인철이 보기에 10월 유신은 민족사를 하나의 단일체로 과잉 실체화하여 거대한 국가적 아버지상을 확립하고 있는 것이다. 미진하지만 4·19혁명의 힘으로 그나마 민주적인 골격을 유지하고 있던 제3공화국은 박정희의 군부거사로 확실한 독재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⁴¹⁾ 인철은 광주대단지투쟁, 탄광노조결성, 명훈의 죽음, 부동산 투기로 쌓아올린 영희의 천민자본, 옥경의 노동자파업 등 가족들의 모든 불행은 10월 유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41) 홍윤기, 「부실권력과 권력의 낭비구조」(『당대비평』1호, 1997), 154~155쪽 참조.

그런데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닦아온 논리로 보면 이 특이한 변경적 상황은 내가 편입을 시도했던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오. 10월 17일, 유신 선포를 들으면서 내가 느낀 것은 애써 긍정하려고 한 체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걸 보는 황당함이었소. … (중략) … 한형은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미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외디푸스의 낭패를 아시오. 정확한 비유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내게 시월 유신은 꼭 그렇게 들렸소. 그리고 나름의 짐작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의 외디푸스는 이번에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다시 칼을 갈게 될 지도 모르는 일이오.(12권, 231~232쪽)

정통성 없는 박정희 정권이 10월 유신이란 비민주적 합법성으로 무장하여 독재 권력을 합법화하려 할 때, 인철은 그나마 “애써 긍정하려고 한 체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황당함”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인철은 “외디푸스의 낭패”에 빗대고 있다. 박정희의 10월 유신으로 인해 주체적인 가장이 되어야겠다는 의지는 한 순간에 꺾이고 만다. 이제 현실 아버지라는 존재는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살해”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나 자신이 부정해야 할 현실의 아버지가 박정희 정부에 의해 “이미 살해되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의 고마움보다는 “황당함”이 앞선다. 부정을 당하는 입장보다 부정을 하는 주체가 더욱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다면, 그 행위는 용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인철은 “다시 칼을 갈게 될 지도 모르”겠다고 말함으로써 10월 유신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철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사회 상층부에 대한 열망을 버리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주변계급으로 확정한다. 주변계급은 속성상 안정·정착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인철이 주목하고 있는 소설쓰기,⁴²⁾ 즉 주변부문학은 중심의 횡포에 대한 전

42) 인철의 소설쓰기에 대하여는 필자가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한 바 있다. 『이문열 『변경』에 나타난 양가성 연구』(『현대소설연구』29집, 2006)과 『기억의 허구성에 대한 탈식민적 자각-이문열의 『변경』 연구』(『현대소설연구』31집, 2006)에서는

복적 태도와 일탈 의지 속에서 떠돌이의식을 내장할 수밖에 없다. 그간 양자의식과 고아의식은 아버지를 탐색하면서 동시에 신분상승과 정착에 대한 열망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철이 자신을 주변부계급으로 확정하고 주변부 문학에 적을 두려는 태도는 현실의 아버지를 부정하고, 현실의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떠돌이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주변 계급에 머무르며 어떠한 형태의 아버지와도 연결되지 않겠다는 인철의 주변부문학론은 영희와 명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떠돌이의식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떠돌이의식은 궁극적으로 탈식민의 의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양자의식과 고아의식이 육친의 아버지를 아메리카 제국이라는 현실 아버지로 대치하려는 노력이었으며, 아메리카 제국에서 삶의 근거를 확보하려 했던 것이 식민적 열망과 관련된다면, 이러한 떠돌이의식은 아메리카 제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탈식민의 의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인철의 논리는 텍스트의 힘 혹은 글쓰기가 갖는 공격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탈식민주의자들의 논리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⁴³⁾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주변부 문학의 참신함은 추상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소설은 인철이 주변부 문학을 결심하는 장면에서 서둘러 끝을 내으로써 주변부 문학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변경』이 인철의 주변부 문학을 좀더 치밀하게 서술하여 문학에 대한 입장을 능동적인 역사 해석의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렸더라면 탈식민의 노력은 현실화할 수 있었을 터

소설의 사회적 효용성, 그리고 『이문열 『변경』의 탈식민주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한국문학논총』42집, 2006)에서는 문학과 권력과의 관계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43) 소설을 통해 식민 지배와 대면하려는 노력은 탈식민주의 담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살만 루시디를 비롯한 많은 탈식민주의 소설가들은 제국의 언어와 문학을 거부하고, 서구 중심부의 지리적 및 상상적 공간을 해체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바 있다. 릴라 간디, 앞의 책, 190~192쪽 참조.

이다. 그런 점에서 주변부 문학을 모호한 채로 소설을 마감하고 있는 『변경』의 탈식민의 노력 역시 한계를 가진 미완의 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⁴⁴⁾

V. 결론

가부장제에서의 아버지는 육신적으로는 강력한 보호망이며, 정치적으로는 절실한 지배 권력이다. 그런 점에서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복종의 대상이며, 식민성을 바쳐야 하는 가장 가까운 식민지배자이다. 본고는 『변경』에서 고통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를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고, 생존을 위해 ‘현실 아버지를 새로운 대상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고찰’하여 보았다. 1950년대 후반의 경제대국 미국과,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경제자립육구, 그리고 1972년 10월 유신이라는 격랑의 현실 속에서 절대강자에 따라 ‘변모하는 아버지상’에서 ‘식민화된 의식과 탈식민적 의지’를 도출하였다.

아버지의 월북 직후, 인물들은 막강한 원조를 쏟아 부은 미국을 새로운 아버지로 호명하는 양자의식을 내면화한다. 하지만 이러한 친미적 태도는 아메리카 제국에 대한 굴종을 내재화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자와 식민모국 사이에는 동일할 수 없는 엄청난 균열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미국중심주의를 탈피하여 자신의 주변성을 저항의 원천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이다. 명훈의 집짓기와 영희의 부동산 투기와 육체 개조, 그리고 인철의 이야기는 아메리카 제국 대신에 주변성에 있는 자신에게 새로운 가장으로서의 가치를

44) 주변부 문학의 한계에 대하여는 권유리아, 『이문열 『변경』의 탈식민주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한국문학논총』 42집, 2006)에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피하기로 한다.

부여한다. 1960년대 중반은 미국의 원조 격감 등으로 인해 자립 경제에 대한 욕구가 팽배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하지만 이렇게 주변성을 저항의 원천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비서구를 주변적인 것으로 고착시키는 기제로 역이용될 수 있다. 스스로 가장이 되려는 노력은 결과적으로 식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공모하는 부정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⁴⁵⁾ ‘현실의 아버지가 식민성의 근원’이라면 현실 아버지는 당연히 부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뿌리없는 존재라는 떠돌이의식 속에서 현실 아버지에 대한 열망은 완전하게 폐기된다. 명훈의 대정부투쟁과 죽음, 영희의 회심, 그리고 인철의 소설쓰기는 이러한 식민적 열망을 폐기하는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메리카 제국, 박정희 독재정권과 같이 중심 권력에서 현실 아버지를 구하는 방식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중심을 복제하려는 열망’에 불과하다.⁴⁶⁾ 이렇게 시대를 추수하다 보니 전복의 의지는 미흡하거나 감성적인 선에서 머무르고 만다. 『변경』의 모든 저항이 깊이있는 탈식민적 실천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실 아버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 대신에 식민적 열망이 충족되지 않은 데 대한 격렬한 원망과 분노가 『변경』의 ‘모든 저항을 실패’로 끝나게 한다. 『변경』은 명훈의 죽음을 통해 실패를 인정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영희의 회심에 탈식민적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 인철의 경우는 식민적 열망을 폐기하려는 의지는 선명하지만,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주변부 문학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주변부성을 고착시키는 결과로 귀착된다.

모든 의식은 고정불변의 진리나 정태적 구조가 아니다. 수정과 변형이 가능한 헤게모니적 과정이다. 변경인의 종속성도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권력의 내부에 자신들이 도달할 정체성을 현실 아버지로 설정해놓고 거기에 인식과 행동을 껴 맞추려는 『변경』의 태도에서 진

45) 강진구, 『한국소설에 나타난 식민주의 욕망 탐구』(문학과비평연구회, 『탈식민의 텍스트, 저항과 해방의 담론』(이회, 2003), 250쪽.

46) 김준환, 『탈식민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고부웅 외, 앞의 책, 114쪽 참조.

정한 궤도 수정은 기대할 수 없다. 저항이 새로운 권력, 즉 새로운 현실 아버지에 대한 욕구에서 나온 것이라면 진정한 저항이라 할 수 없다. 권력의 형태, 현실 아버지의 형태만 끊임없이 바뀔 뿐이다. 따라서 『변경』에서 현실 아버지가 계속해서 교체되는 과정은 사실은 저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공모이며 새로운 식민성이 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식민 제국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현실 아버지는 언제나 새롭게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대안 없는 유토피아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변경』은 ‘식민에 대한 종속성은 매우 선명’하지만, 상대적으로 ‘탈식민의 자생성은 불투명’한 한계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가지게 된다.

주제어 : 현실 아버지, 식민의식, 탈식민적 의지, 양자의식, 고아의식, 떠돌이의식

참고문헌

- 강진구, 「한국소설에 나타난 식민주의 욕망 탐구」, 문학과비평연구회, 『탈식민의 텍스트, 저항과 해방의 담론』, 이회, 2003, 250쪽.
- 고 원, 「박정희 정권 시기 농촌 새마을운동과 ‘근대적 국민 만들기」(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사회』제69호, 2006), 178~201쪽.
-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24~26쪽.
- 권유리아, 「이문열 『변경』에 나타난 양가성 연구」, 『현대소설연구』29집, 2006, 349~367쪽.
- _____, 「기억의 허구성에 대한 탈식민적 자각」, 『현대소설연구』31집, 2006, 243~266쪽.
- _____, 「이문열 『변경』의 탈식민주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문학논총』42집, 2006, 219~241쪽.
- 김대환, 「박정희시대를 해부한다 박정희 경제개발정책의 현재적 조명」,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1993년 여름, 145~156쪽 참조.
- 김주연, 「아버지 상징, 그 파괴의 서사적 힘」, 이문열, 『변경』12, 문학과지성사, 1998, 236~237쪽.
- 김준환, 「탈식민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고부웅 외,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문학과지성사, 2003, 114쪽.
- 김정주, 「1950~1960년대 한국의 자본축적과 국가기구의 전면화 과정」,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전망』60호, 2004, 197~241쪽.
- 양석원, 「탈식민주의와 정신분석학」, 고부웅 외,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지성사, 2003, 72~73쪽.
- 윤건차, 『현대 한국의 사상 흐름』, 당대, 2000, 292~293쪽.
- 이경원, 「그들의 테크놀로지와 우리의 이데올로기-포스트모던 시대의 ‘파농주의」, 비평이론학회, 『비평』3, 2000년 하반기, 168쪽.
- 이옥순,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 푸른역사, 2002, 66쪽.

- 이태호, 「1970년대 노동운동의 궤적」, 『실천문학』4호, 1983, 157~194쪽.
- 장상환, 「해방후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 부동산 투기」(『역사비평』, 2004년 봄), 55~78쪽.
- 최장민, 「미국식 근대로의 질주, 동양적 주체의 제한적 복원」, 문학과비평연구회, 『탈식민의 텍스트, 저항과 해방의 담론』, 이회, 2003, 224~226쪽.
- 하웅백, 「변경인(邊境人)의 탈(脫) 변경」, 이문열, 『변경』12, 문학과지성사, 1998, 272~276쪽 참조.
- 홍윤기, 「부실권력과 권력의 낭비구조」, 『당대비평』1호, 1997, 148~176쪽.
- 고모리 요이치, 송태욱 옮김, 『포스트콜로니얼,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 삼인, 2002, 44쪽.
- 릴라 간디, 이영욱 옮김,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2000, 28~192쪽.
- 샤오메이 천, 정진배·김정아 옮김, 『옥시덴탈리즘』, 강, 2001, 12~29쪽.
-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05, 21~22쪽.
- 응구기 와 씨옹오, 이석호 옮김, 『탈식민주의와 아프리카 문학』, 인간사랑, 1999, 37쪽.
- 프란츠 파농, 이석호 옮김,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1998, 25~169쪽.

<Abstract>

Colonial Consciousness Revealed in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Real Father’

Kwon, Juria

In this thesis, the father who is the source of the suffer in Border was not seen as the fixed substance but reflected the process of the substitution of ‘real father’ as the new object connecting the periodic circumstances. In the reality of raging waves of the economic power, the United State in late 1950s, the ambition of economical independence of President Junghee Park in 1960s, and Revitalizing Reform in December, ‘Colonialized consciousness and decolonial will’ was deduced from the ‘transforming image of the father’ depending upon the absolute power.

Just after father’s crossing over into the North Korea, the characters internalized the consciousness of the adoptive son calling the United States as new father who supported enormously. This pro-United States attitude, however, is the primary factor of the internalization of submission toward American empire. Moreover, it is perceived that there exists a huge crack between the adoptive and the colonial mother nation. The next step is that recognizing their own peripherality newly as their source of resistance breaking through the American centralism. Myunghoon’s house building, Younghee’s speculation in real estate, Inchul’s story are endowed them who live in perimeter instead of American empire with values as new patriarches. In mid 1960s, it was the period when the ambition of

independent economy was surging because of the decrease of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The attitude which recognizes the peripherality as the source of resistance, however, can be taken advantage of as materials adhering non-Western as the peripheral. The effort of becoming the patriarch by themselves ended in the negative result confirming the colonialism consequently. If the ‘real father’ is the source of coloniality, he should be denied. Therefore, the ambition toward the real father could be perished completely in the consciousness of the wanderer as the rootless existence. Myunghoon’s anti-government struggle and his death, Younghee’s conversion, and Inchul’s writing novels are used as the materials to perish the colonial ambitions.

The subordination of outsider is not given but having been made. Real modification of the course can not be expected in Border where they set their targeted identity as real father in the inside of the power and try to adjust their recognition and behavior there. If the resistance came from the new power, the desire toward the new real father, it can be it the real resistance. Therefore, in Border, the process of changing the real father continuously is not in fact by the resistance but rather the conspiracy of the power and found many new possibility in coloniality. In this respect, the Border shows very clear subordination toward the colony but the autogeny of decolonity has the task to conquest untransparent limits

Key Words : real father, colonial consciousness, decolonial will,
consciousness of the adoptive son, consciousness of the
orphan, consciousness of the wanderer